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2)

칭기불벌

稱 其 不 伐

자랑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였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대선이 치러졌다. 이 짧은 대선 기간은 나라가 온통 두 쪽으로 난 것 같았다. 각 진영에서는 자기 편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온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절박하게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거의 주말마다 광화문과 여의도는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 집회를 열었고 이때 연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쏟아 내는 말들을 보면 그들은 마치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온 몸을 다 바칠 것 같은 애국심이 절절 넘쳐흘렀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여야는 바뀌고 여야는 각기 진영을 짜기 시작했다. 선거 때 그들이 한 말을 되새겨 보면 이제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애국심을 발휘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 때 애국심은 무엇일까? 사실 선거기간에 상대를 넘어트리려고 투쟁한 것도 상대방을 넘어트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얻으려는 데 있고 해야 맞다. 그렇다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그러려면 선거 때에 앞에서 투쟁하던 사람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적절한 인재가 등용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애국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선거전에서 세운 공적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자리를 둔 내부 투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논공(論功)은 공로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니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 주어야 하는 상(賞)은 상패(賞牌), 감사패(感謝牌)로 마무리해야 하지, 논공행상을 직위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매관매직(賣官賣職)이다. 투쟁력으로 직위로 사는 셈이니 말이다.

어느 시대이건 치열한 전투와 그에 따른 행상(行賞)은 있어 왔다. 그러나 싸움을 잘한다고 하여서 다른 일까지 잘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쟁이 끝나면 전투했던 사람은 전투분야에서 일정한 상을 받았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잘 싸운 것을 내세우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자리를 요구하면 그 순수하지 못한 행동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그런데 원대(元代)에 대단한 공을 세우고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강남행성(江南行省)의 좌승(左丞)인 동사선(董士選)이다. 그는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가 죽고 성종(成宗)이 등극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골칫거리를 잘 해결한 사람이다.

몽고족은 중원 북방에 있던 금(金)왕조를 멸망시키고 원(元)왕조를 세우고서 다시 남방의 남송(南宋)까지 멸망시켰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원의 남부지역에는 원(元)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고, 그 위에 관리들의 강압적 통치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백성을 모아서 봉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강서(江西)지역 공주(贛州)에 사는 백성인 유륙십(劉六十)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원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무리 1만여 명을 모으고 국호까지 만들고 세력을 뻗쳐 가고 있었으니 상당히 세력이 커진 것이고 또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장수를 파견하여 이를 토벌하였지만 그들은 가서 관망(觀望)하다가 물러나니 토벌군은 위축되었다. 또 그 지역 수령(守令)들은 양민(良民)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었으니 유륙십의 형세는 날로 왕성해져 갔다. 모두 능력이 없었는지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 조정에서 보면 유륙십의 세력은 큰 골칫거리였다.

이때 강남행성(江南行省)의 좌승(左丞)인 동사선이 스스로 가게 해달라고 자청하고, 그는 그날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군사를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만 실무 담당관인 연리(掾史) 이정진(李霆鎭)과 원명선(元明善) 두 사람만을 인솔하며 문서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파라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도무지 동사선의 속셈을 알 수 없었다. 유륙십이 장악하고 있는 공주의 지역에 도착하고서도 유륙십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에 파지고 보면 자기편이라 할 관리들 가운데 백성을 해친 사람을 체포하여 이를 법대로 처리하였다.

이를 본 백성들은 서로 말하였다. “관법(官法, 국가의 법률)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있는 줄을 몰랐네!” 당연히 백성을 해친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이 규정으로 자기편인 관리를 처벌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곳 백성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사선은 더 나아가서 유륙십이 세운 영채(營寨)까지 거리가 1백리가 되지 아니한 지점인 흥국(興國)에 도착하여서

는 유륙십의 영채를 공격하기보다는 소수의 군사로 경계근무만 하게하고 혼란을 격발(激發)한 사람을 살피서 알아내어 모두 법으로 처리하고, 다시 간민(姦民) 가운데 낭탁(囊橐)이 되어 유륙십의 세력을 비호한 사람을 골라 주살하였다.

이를 본 백성들은 다투어 동사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며칠 되지 아니하여 유륙십은 사로 잡혔고, 그를 따르던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해산하였으니 유륙십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유륙십의 본거지에서 많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근처에 있는 군현의 부자(富者)들 가운데 유륙십과 왕래하고 협조한 사람들의 성명이 있었다. 이들은 유륙십을 도운 세력이나 처벌받을 상황이었지만 동사선이 데리고 간 이정진과 원명선이 이 문서를 다 태워 버렸다. 유륙십이 지배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잡혀 갈 일을 걱정했겠지만, 이것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전투를 하지 않고도 대승을 거두고 평화를 가져 온 것이다. 이보다 큰 공로가 있을까?

동사선은 사자를 파견하여 유륙십이 평정되었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재상인 박과밀(博果密)이 그 사자를 불러서 말하였다. “동공(董公)이 세운 공로에 대한 기록을 올려왔는가?” 이에 동사선의 사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떠나는데 좌승(左丞, 동사선)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만약에 군공(軍功)을 가지고 묻거든 다만 진무(鎮撫)한 것이 형편없으니 죄를 면해 주시는 것만으로 아주 다행인데 무슨 공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한 편지에는 다만 장리(贓吏, 부패관리) 몇 사람을 내쫓게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고 도적을 깨트린 일은 말하지 않았다. 이를 안 당시 사람들은 동사선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이처럼 공을 내세우지 않고 백성을 먼저 생각한 동사선의 사례를 되새겨 보면, 어떤 일이든 진정한 공로란 조용히 드러나는 법이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지도자보다 국민의 안목에서 비롯되는 것일 테니, 다시금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공적 판단력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기절초풍(氣絶招風)

기운 기. 끊을 절. 부를 초. 바람 풍.
기절하거나 까무러칠 정도로 몹시 놀라 질겁을 함.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심하게 놀람.

기진맥진(氣盡脈盡)

기운 기. 다할 진. 이어질 맥. 줄기 맥.
기운이 다하고 맥이 다 빠져서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됨. 힘을 모두 써서 쓰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됨.

기호지세(騎虎之勢)

말할 기. 호랑이 호. 어조사지. 기세 제.
호랑이에 올라탄 기세.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도중에 내리는 순간 호랑이 밧이 되고 말조. 그래서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고 끝을 내야할 형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

기우(紀憂)

나무 이름 기. 쟁기 기. 근심 우.

영풍군 권길 배향 임란북천전적지 총렬사 제433주년 제향 봉행



영풍군 권길 상주판관이 배향된 임란북천전적지 총렬사에서 6월 4일 11시 강영석 상주시장과 권세환 상주총렬사 운영위원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을 비롯하여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권오섭 문충공 종중 사무국장, 권기훈, 권영무 등 문종의 후손들과 각 기관 단체장,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3주년 제향이 봉행되었다.

이날 현관에는 초헌관에 강영석 상주시장, 아헌관에 김홍배 상주문화원장, 종헌관에 이래현 이경류공 후손 대표가 헌작하였다.

임란북천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의 최초의 격전지로 433년 전 900여 선열들이 왜군의 주력부대 1만 7천여 명을 맞이하여 장렬하게 싸우다 순절한 호국성지이다.
권기준 영풍군 후손

2025年 6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4.30. ~ 5. 27. 총 납부자 15명 총 45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고덕(서울서초) 30,000	권도현(안동) 30,000	권영국(대구) 30,000	권영채(예천) 30,000
권중도(포항) 30,000	권동열(서울송파) 30,000	권영수(제천 화산동) 30,000	권오길(부산)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대포(용인) 30,000	권봉호(대구) 30,000	권영일(단양) 30,000
권인호(인천) 30,000	권혁무(대구 수성구)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총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 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